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품- ELS, ELF, ELD



한상연

신한은행 올림픽션수촌PB팀장
(hans03@shirhan.com)

ELS? ELF? ELD? 무슨 암호 같은 단어들이지만 금융상품의 종류를 일컫는 이름들이다. 이들 생경스러운 이름이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면서 새로운 투자자나 기존투자자들 모두 더 많은 투자정보와 투자전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ELS, ELF, ELD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품이다. 정기예금처럼 확정된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투자결과에 따라 최종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펀드 투자와 유사하지만 원금보장이 안되는 일반 펀드들과 달리 이들 상품은 원금보장 내지는 조건부 원금보장 형태의 투자가 가능해 고수익 고위험의 주식형펀드 투자가 부담스러운 때 대안으로 많이 거론된다.

먼저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주가연계증권’으로 투자원금과 수익이 주가지수 또는 개별주가에 연동되는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운용 자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일부자산을 주가와 연동되는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초과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의 금융상품(유가증권)이다. 투자금의 상당금액을 안전한 채권으로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투자금 일부만을 고수익을 기대하는 옵션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이에 ELS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파생상품으로 투자하는가에 따라 만기에 최소한 원금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도 있지만 원금보장률을 줄이면서 조건부 원금보장 또는 원금 90% 보장식의 부분원금보장형 상품도 가능하다. 한편 ELS는 사전에 지급되는 수익율과 수익 달성 조건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만기 시에 가입시점 대비 떨어지지만 않으면 즉, 100% 이상이면 연 10%의 수익을 지급하는 식으로 조건이 정해진다. 물론 10%의 수익은 만기 시의 주가지수가 처음보다 오르거나 적어도 같을 때 얻을 수 있으며, 오히려 주가지수가 하락했다면 원금 또는 조건에 따라 일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처럼 ELS는 이처럼 투자대상인 기초자산을 무엇으로 하느냐와 어떤 조건을 목표달성 조건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표달성 시 지급되는 수익율에 앞서 과연 목표 조건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전망

The Risk & Wealth

에 비추어 가능할지를 먼저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가연계펀드’인 ELF(Equity Linked Fund)는 ELS와 유사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ELS에 투자하는 펀드가 ELF니까 어찌보면 ELF와 ELS는 형제간인 셈이다. 따라서 ELF 투자자도 결국은 ELS에 투자하는 셈으로 ELF의 수익이나 목표달성조건은 투자하는 투자대상 ELS조건에 따라가게 된다. 차이점은 ELS가 증권사 상품인데 비해 ELF는 자산운용사 상품으로 은행에서도 판매된다는 점과 펀드인 ELF는 주식매매차익이 과세된다는 것이다. 수익 전체가 과세 대상인 ELS와 달리 ELF는 주식운용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과세되기는 하지만 ELF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ELS(과세대상)로 운용하기 때문에 실제 주식매매차익의 과세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ELF는 ELS와 유사한 상품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구분보다는 ELS와 마찬가지로 수익달성 조건과 투자 시 어떠한 투자위험이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본 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끝으로 ELD(Equity Linked Deposit)는 ‘주가지수연동예금’으로 앞서 ELS의 ‘증권’이나 ELF의 ‘펀드’와 달리 ‘예금’의 성격을 가진다. 은행 상품인 ELD는 투자원금을 정기예금 등의 안전한 자산에 운용해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하고 발생하는 예금이자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해 주가지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ELD 또한 사전에 정한 목표조건이 달성될 때 약속한 고수익이 지급된다. 다만, ELD는 예금상품으로 안전성을 중시해 조건부원금보장 또는 원금보존추구형의 ELS나 ELF와 달리 만기 시 100% 원금보장(중도해지시는 원금보장 안됨)이 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ELS나 ELF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장점을 갖지만 리스크 부담이 적은 대신 기대수익은 ELS나 ELF에 비해 다소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리하면 ELS나 ELF, ELD는 복잡한 금융시장 환경만큼이나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며, 제각각 제시하는 목표달성 조건이나 수익 조건 등도 다르다. 또한 같은 내용의 상품이라도 주식시장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가입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정확한 내용 파악이 우선이며, 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향후 시장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아울러 각 상품마다 원금보장 조건과 어떠한 투자위험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많이 공부하고 준비한 투자자가 성공한다는 법칙이 이 역시 예외는 아니다.

[ELS, ELF, ELD 비교]

구분	ELS(주가연계증권)	ELF(주가연계펀드)	ELD(주가지수연동예금)
투자형태	유가증권 매입	펀드가입	정기예금가입
발행기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은행
만기수익	목표조건 달성 시 미리 제시한 수익률 적용 (조기상환 목표 달성 시 만기 전 조기상환 가능)		
만기 시 원금 보장	조건에 따라 다름		100% 원금보장
예금자보호법	예비대상		대상